

5장 굴곡 많은 세상사에 의연해지는 법

無苦集滅道,無智亦無得

어찌하여 마음이 지치고 고통스러운가

- ‘苦諦’는 고통의 진리다. 이것은 부처가 말하는 불법의 전제로 사는 것이 곧 고통이라는 뜻이다. 무엇이 고통인가? 生老病死, 求不得, 怨憎會, 五蘊盛(오:온 (五蘊)
(불) 물질과 정신을 오분(五分)한 것. 곧, 색(色)·수(受)·상(想)·행(行)·식(識). 오음(五陰). 오중(五衆).
)
- ‘集諦’는 고통의 원인이다. 우리는 왜 고통스러운가? 바로 욕망 때문이다.
- ‘滅諦’는 고통이 사라지는 진리다. 고통은 없앨 수 있다.
- ‘道諦’는 성불의 진리이자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다.
- 고는 속세의 결과이고, 집은 속세가 고통스러운 원인이며, 멸은 속세를 초월한 결과이고, 도는 속세를 초월한 원인이다.